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후원과 참여, 소식지 광고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
전화 : 267-475-7132, 814-777-4379
- Paypal: philasewol@gmail.com
www.facebook.com/philasesamo

1월의 주요 활동

1월 8일(일) 오후 5시 30분
세월호 참사 1000일 기억 필라지역 범종교 간담회 _ **'다시 시작입니다'**
(챌튼햄 알버트시니어데이센터)

1월 28일(토) 오후 4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라델피아 6차 촛불집회 (챌튼햄 H마트 앞)

소식지와 기억팔찌를 계속 나눕니다.

1월 27일(금) 어퍼다비 H마트
1월 28일(토) 챌튼햄 H마트
1월 29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2월 4일(토) 체리힐 H마트

(좌: 세월호참사 1000일 추모 재외동포 행동 포스터, 우: 뮌헨, 안산 1000일 음악회, LA(위부터))

세월호 1000일, 이제부터가 진짜 진상규명의 시작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국민들은 천 일 동안 노란 리본을 만들어 서로의 징표로 삼으며 전국으로 세계로 퍼뜨려 나갔습니다. 진상 규명과 인양을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농단을 부린 권력자의 직무가 정지되던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루어지던 날,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진상 규명의 시작임을,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세월호와 함께 저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1,000일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과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_ 세월호 1000일 음악회에서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발언 중

"여전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1천일의 기억과 다짐

세월호 참사 1천일을 맞은 1월 9일을 전후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의 신속한 귀환을 기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한국 및 해외 각지에서 잇따랐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미수습자 9명의 귀환을 염원하는 추모문화제가 열렸고,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려 각지에서 온 2천여 명의 시민이 몰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맞물려, 광주, 대전, 부산, 전주, 인천, 횡성, 강릉 등 한국 곳곳은 물론, 뉴질랜드, 독일, 미국,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태리,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 전 세계 13개국 34개 이상의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조사위원회가 1월 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1차 촛불집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아들 준형이를 떠나보낸 후 우리의 시계는 멈췄고 달력은 넘어가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후 흐른 1000일은 1000번의 4월 16일이었다", "지난 1000일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정부에 맞서 싸우며 견딘 날들이었다면, 앞으로의 1000일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진상규명 해나가는 날들이 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조사위는 지역,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조사위 홈페이지(www.416truth.org)를 통해 자원활동가와 시민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될 국민조사위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중단되었던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월호 1000일 필라 범종교 추모식 '다시 시작입니다'

- 40여 동포 원불교 · 천주교 · 개신교 강론 듣고, 추모곡 · 영상 감상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동포들의 추모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강추위가 몰아닥친 필라델피아에서도 지난 1월 8일(일) 오후 5시 30분 엘킨스파크의 알버트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1000일 범종교 추모식- 다시 시작입니다'(부제: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가 40여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분하게 개최되었다.

필라세사모의 김태형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원불교의 강신오 교무, 천주교의 이상용 신부, 기독교의 이태후 목사가 각각 종교 대표로 참가해 추모문을 읽고 강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전체 묵념 후, 성우 김상현씨가 낭독한 신경림 시인의 '언제까지고 우리는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를 경청한 후, 416유가족의 인사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이준석씨의 진행으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윤민석 작사 · 곡)를 율동과 함께 합창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종교별 추모행사에 들어갔다.

강신오 - 진리와 양심과 정의가 살아나 환하게 빛나기를

가장 먼저 강론에 나선 원불교 필라교당의 강신오 교무는 "세월호 천일이 지난 오늘은 마치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깊은 바다와 같이 춥다"고 운을 뗀 뒤. "출가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오만하던 시절 얕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이게 죽는 건가 싶어 공포감에 젖었던 때를 기억한다"며 "온몸으로 물이 스며들 때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고, "모든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으로, 삶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한국민과 교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이뤄가고 있다"며 "세월호는 아직도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홍익인간의 정신과 양심을 끌어 올려주고 있다"고 밝히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낸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무는 "탄핵이후가 비로소 시작이라는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 모두 구속

지난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야당의 대선 후보와 시장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 1만여 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진룡 전 장관이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재임 시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블랙 리스트의 작성을 지휘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직원들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차별·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에 따르면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권진국, 「유진룡 “김기춘 주도 블랙리스트, 반대세력 핍박하려 공권력 동원”」 국제신문, 2017.01.24.
안아람,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 모두 구속」, 한국일보, 2017.01.21

세월호 1000일, “매 순간이 다시 시작입니다”

(2면에 이어) “함께 연대하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 생명과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동포들과 촛불을 든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들에게 진리의 큰 은혜가 함께 해서 진리와 양심과 정의가 살아나고 촛불과 같이 일어나 들불이 되고 산불이 되어 온 세상에 환하게 빛나기를 기원한다”며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매순간이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말론 강론을 마쳤다.

이상용--천만 촛불 역사적 사건,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필라델피아 성모마리아 한인성당의 이상용 주임신부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세월호는 오래 기억에 남고 안타깝다”며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에 지난천일동안 많이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닌 것은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며 “세월호 유족들을 통해 제주 4·3사건을 비롯 광주학살, 인혁당 사건 등 지난 세월 우리 역사속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함께 떠올릴수 있었”으며, 특히 세월호는 ‘나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있을 당시 세월호 초기 각종 플랭카드를 보면서 소위 ‘냄비근성’을 떠올리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모습이 계속되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이 ‘그만하라’며 계속 호도해 더 공분을 샀다”고 분석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심지어 ‘빨갱이’로 몰기까지 하는 모습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슬픔이 재연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진실은폐와 억압에 굴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상용 신부는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을 방문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잊지 않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기억을 나누며 “천만 촛불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월호를 끝까지 잊지 않고 진실규명에 노력해 온 유가족과 세사모 회원들이 그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개보수들의 공격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는 등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빌며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태후 - 공의 드러나고 있어, 유가족들의 눈물 닦아주길

노스필라에서 흑인 빈민사역을 하고 있는 이태후 목사는 “세월호 사건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종교, 이념, 성향을 떠나 당연히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문제를 풀어내야 이후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다”고 평가하며, “세월호 사건 발생 1000일이 다되도록 우리는 아직 ‘왜 악천후에 배가 출항했는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배가 가라앉는 동안 왜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도움을

'블랙리스트' 시작은 세월호였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옥죄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작업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블랙리스트 작성 논의가 시작됐다는 문체부 직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인했다. 블랙리스트 작업이 1차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세월호 활동과 행사를 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부터 겨냥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2014년 6월 ~ 2015년 5월) 정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장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라지역 6차 촛불시위

탄핵소추는 시작일 뿐, 박근혜의 즉각퇴진,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 해체를 위해 촛불은 더 밝게 타올라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촛불이 되어 주세요!

일시 : 2017년 1월 28일(토) 오후 4시
장소 : 챌튼햄 H마트 앞

"세월호, 종교·이념·성향 떠나 당연히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일"

(왼쪽부터 이태후 목사, 강신오 교무, 이상용 신부)

(3면에 이어) 제공한 이들마저 거절했는지' 등 수많은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세금을 열심히 낸 평범한 시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피해 잘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개탄하면서, "부정으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이들은 세상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딴 세상에 사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천일이 되어가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대학부정입학을 시발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능자께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라며 "친일청산을 하지 못해 왜곡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가까이 하신 분"이라며, "주님께서 올해는 유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304명 희생자 이름 담은 추모곡, 모두의 심금 울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김성규(클라리넷), 이상창(플룻), 구현미(피아노), 한광호(기타)로 구성된 특별 연주팀의 반주에 맞춰 펜필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승희 양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불러 감동을 선사했고, 이준석씨의 선창에 따라 다함께 '잊지 않을게'를 부르며 '다시 시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곡으로 세월호 희생자 30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부르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노래영상을 10여분간 시청했는데, 추모영상이 계속되는 동안 일부 객석에서는 간헐적인 한숨, 숨죽인 울음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행사 후에는 필라세사모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 나누며,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끼는 여담을 나누고,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는 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하였다.